

리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3

I. 일반개황

면적	1,760 천km ²	GDP	864 억 달러(2012년)
인구	6.61 백만명(2012년)	1인당 GDP	13,068 달러(2012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Libyan Dinar (LD)
대외정책	친서방정책 전환중	환율(달러당)	1.25 (2012년)

- 리비아는 알제리, 이집트, 차드, 수단 등과 접경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8배에 달하는 국토와 66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 총 500여 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대 부족인 와르팔라, 주와야, 카다파가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
- 1969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카다피 (Qadhafi) 국가 원수는 집권 후 '이슬람-사회주의'의 슬로건 하에 의회 및 정당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1인 지도체제를 유지하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으나, 2011년 초에 발생한 민주화시위로 인해 축출됨. 이에 따라 리비아의 42년 독재정권도 종식되었음.
- 2012년 9월에 알리 제이단(Ali Zeidan) 총리의 2기 임시내각이 출범하면서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NTC)로부터의 공식적인 권력이양은 종료되었으나,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정당인 국민연합과 정의건설당이 각각 자유주의와 이슬람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정권 정착 과정에서 이념충돌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내전 종식 이후에도 총기 발포, 무장 강탈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는 등 치안 공백으로 인한 사회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내전 당시 약탈당한 다량의 무기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치안 유지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II. 경제동향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e
경제성장률	2.7	-0.7	4.3	-61.4	92.1
재정수지/GDP	23.7	7.1	6.8	-15.7	22.1
소비자물가상승률	10.4	2.5	2.5	15.9	10.0

자료: IMF, EIU.

1.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 석유부문이 GDP의 50%, 총수출의 90%, 재정 수입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등 경제구조가 석유 부문에 극도로 편중되어 있어, 국제 유가 및 석유 생산량이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정부가 비석유 부문 투자를 통하여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과 관광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 정부는 2010-13년 간 33억 디나르 규모의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식품가공, 섬유, 전자재 등 제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와 내전 발생 등으로 인한 인프라 시설 부족

- 1986년 이후 약 20년에 걸쳐 지속된 미국과 유엔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인프라 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 및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프라 시설은 급속도로 악화된 바 있으며, 이에 정부는 경제제재 해제 이후 수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발계획을 세우고 공항,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2011년 2월부터 발생한 내전 당시 폭격 등으로 주택 및 항구, 도로 등 인프라 등이 파괴되었고, 이에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NTC)는 5년 간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 고질적인 용수 부족

- 사하라사막의 일부인 리비아사막이 전 국토에 걸쳐 있으며, 용수부족으로 농경지 확대가 어려워 2007년을 기준으로 농경지가 국토의 8.8%에 불과함.
- 정부는 고질적인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부 사하라 사막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북부 지중해안 도시들에 하루 650만t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수로 건설을 진행 중임.
 - 내전 종식 이후에는 전후 재건을 위한 국외 기술인력 파견 등이 이뤄지며 대수로 운영 정상화가 진행되었음. 내전 이전 총 5단계 중 1~2단계 공사가 완공되었으며, 리비아 정부가 설립한 ANC* 3~4단계 공사를 진행 중임.

* ANC: 리비아 대수로청과 대한통운이 각각 75%와 25% 지분으로 설립한
합작 회사

□ 치안 불안과 제도 불비로 기업투자 환경 불안정

- 내전 종식 이후 여전히 불안한 치안과 투자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불확실성 등으로 리비아의 투자환경은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정부는 2013년에 뚜렷한 안보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실현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 투자자들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서는 내전으로 중단되었던 프로젝트들의 재개에 대한 보상문제 등이 해결해야할 과제로 보임.
 - 리비아 정부는 내전으로 중단된 공사에 대해 각국 업체들의 공사재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논외로 취급하는 등 불확실한 입장 표명으로 업체들의 복귀가 예상보다는 늦어지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

- 석유는 2011년 기준 확인매장량이 471억 배럴(전세계 매장량의 2.9%)로 세계 10위, 아프리카 1위임.
 - 국토의 절반 이상이 미탐사 지역으로 남아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됨.
- 천연가스는 2011년 말 기준 확인매장량이 1.5조 m³(전세계 매장량의 0.7%)로 세계 23위, 아프리카 4위 수준이며, 미확인 매장량은 확인매장량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정부는 석유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가스 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였으며, 2004년에 서부리비아가스사업(WLGP ; the West Libya Gas Project)이 완공됨에 따라 천연가스 생산량은 2003년 81억 m³에서 2010년 168억 m³로 증가하였음. 다만 2011년에는 내전으로 인해 41억 m³로 생산량이 전년 비 75.6% 급락하였음.
 - 지리적으로 세계 최대 가스 소비시장인 유럽과 근접하여, 천연가스 수출량의 상당 부분을 해저 가스관을 통하여 유럽에 공급하고 있음.

□ 서비스업, 건설업 등 신규 성장 동력 개발

- 서비스 산업은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분야로 2000년대 (2001~2010년)에 평균 6.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내전으로 인해 2011년에 전년 대비 41.9%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 73.5%를 기록하며 빠르게 회복하였음.
 - 서방 국가와의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관광 분야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관광 산업을 전략 분야로 지정,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 정부가 늘어난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주택, 학교, 상하수도 처리 시설 등 사회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고유가로 인해 석유 부문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되고 있어 건설업은 향후 10년 동안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내전 종식 이후에는 정유, 전력, 항만, 도로, 주택 등을 중심으로 1,000억 달러를 웃도는 리비아 재건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나타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내전 이후 석유생산시설 및 인프라 재건 사업 실시

-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경제정책은 생활수준 개선을 요구하는 대중적 기대에 맞춰 공공부문 투자 증대, 인프라 재건, 고용 창출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내전으로 인해 석유·가스 플랜트 및 정유시설 등이 손상되어 내전 이전 150만 b/d(10)였던 원유생산량이 4만 5천 b/d(11년 8월)으로 급감하였음. 그러나 2011년 11월부터 시작된 시설복구 및 생산 재개로 최근 석유 생산량은 내전 발생 이전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외국인 투자도 비교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원유생산 재개 이후 중국은 리비아와 2012년도에 14만 b/d의 원유 수입 계약을 체결하였음.
- UAE의 al-Ghurair Group은 향후 4년 간 리비아 정유시설에 1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영국의 BP는 중단되었던 리비아 유전 탐사활동을 재개 하였음.
-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NTC)는 향후 5년 간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음.
- 정유시설·주택·공장 건설 등 인프라 분야 1,200억 달러, 자동차·가전제품 등 각종 상품 수입 관련 분야 1,500억 달러, 방산분야에 300억 달러로 추정됨.

- 한편, 2012년에 정부예산(545억 달러 상당) 중 약 120억 달러를 주택 공공사업부에 배정하여 교육시설, 주택, 인프라 사업 순으로 재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산업다각화 및 민간경제 활성화 정책은 성과가 미미한데다 내전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전망

- 정부는 산업 다각화, 고용 창출, 생산성 향상, 인적자원 개발 등의 분야에 33억 디나르를 지출하는 경제개발계획(2010-2013)을 발표하고 산업인프라 등 비석유 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고유가로 인하여 정부가 에너지부문 인프라 구축에 더욱 전념하면서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은 지지부진하였음.
- 정부 소유의 농장 설립 등을 통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자급자족형 농업 체제 구축은 정부의 에너지 부문 집중 투자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해 현재 식료품 수요의 80%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민간경제 활성화와 공공 부문 축소 정책도 석유 및 가스 분야, 통신, 인프라 개발, 호텔, 미디어, 소비재 유통에 큰 이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
- 또한 최근 내전 종식 이후 정부에서 공공부문 투자 및 인프라 재건 사업에 집중함에 따라 당분간은 동 계획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임.

2.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e
경 상 수 지	35,702	9,381	16,801	-2,799	29,330
경 상 수 지 / G D P	110.4	15.3	19.9	1.3	21.5
상 품 수 지	40,292	15,053	24,376	1,786	34,059
수 출	61,950	37,055	48,935	12,986	52,161
수 입	21,658	22,002	24,559	11,200	18,102
외 환 보 유 액	90,803	95,616	96,800	101,872	117,227
총 외 채 잔 액	5,607	5,884	6,375	4,882	5,278
총 외 채 잔 액 / GDP	6.4	9.6	8.7	13.6	6.1
D S R	1.9	3.3	3.1	2.2	2.5

자료: IMF, EIU.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정권 정착까지 당분간 정국 불안 지속 전망

- 2012년 7월 7일 카다피 축출 후 최초로 실시된 제헌의회 총선을 통해 기존 NTC에서 국민회의(GNC)로 권력이양이 진행되었음. 자유주의 계열인 국민연합(NFA)이 최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고 무슬림형제단의 정의건설당(JCP)이 제2당으로 부상하였음.

- 국민연합과 정의건설당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한 자유주의 성향의 국민전선의 무함마드 알 마가리아프(Mohammed Magariaf)가 국민연합의 알리 제이단(Ali Zeidan)을 저지하려는 이슬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아 국회의장으로 선출됨.

- 2012년 10월 의회는 무스타파 아부 샤구루(Mustafa Abu Shagur) 총리가 제출한 내각 구성안이 리비아의 모든 종파·부족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어 거부함에 따라 당선 25일 만에 무스타파 총리를 해임하였음.
- 뒤이어 새롭게 선출된 알리 제이단(Ali Zeidan) 총리의 2기 임시내각이 출범하면서 공식적인 권력이양은 종료되었음. 그러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연합과 정의건설당이 각각 자유주의와 이슬람근본주의를 표방함에 따른 이념적 분열로 잦은 교착상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완전한 의회구성을 위한 총선('13년 10월 예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어 당분간 정치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높은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실업률은 최소 30%에 달하고, 청년 실업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반면, 고급기술이 필요한 분야 등에 근무하는 해외 노동자들이 1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치안 공백으로 인한 사회 불안

- 내전으로 인한 대규모 무력 충돌 이외에도 내전 종식 이후 총기 발포, 무장 강탈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는 등 치안 공백으로 인한 사회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전시상황의 혼란을 틈타 무기창고에서 약탈당한 다량의 무기가 회수되지 않고 있어 향후 신정부의 안보, 치안 확립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3. 국제관계

□ 시위 강경진압으로 악화된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관계 개선 진행

- 2003년에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선언함에 따라 UN의 경제 제재 조치가 해제되는 등 회복되었던 서방과의 관계가 카다피 정부의 민주화 시위 강경 진압 및 민간인 학살로 인해 급속도로 악화되었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1년 2월 26일에 대 리비아 제재안을 결의하자, 미국 등 서방 국가들도 잇따라 동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채택하였음.
- 2012년 9월에는 무장한 폭도 수십 명이 리비아 벵가지 주재 미국 영사관을 피습하여 미국 대사와 외교관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 사건은 일부 미개집단의 행동이므로 미국과 리비아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데다, 리비아 정부가 외국인 보호와 안전의 회복을 약속함에 따라 서방으로부터 정치·금융 지원은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주변 중동국가와의 관계 호전 중

- 내전 당시 카타르가 아랍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서방이 주도하는 군사 작전에 합류하기로 결정하고 전투기 2대와 화물수송 제트기 1대를 급파 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도 동 작전에 동참하기로 하는 등 중동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된 바 있음.
- 그러나 내전 종식 3개월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리비아와의 외교관계 회복에 동의하였으며, 민주화 시위 직후 소환하였던 대사를 재파견하였음.

□ 내전 발생 이후 OECD 및 국제 신용평가기관들 신용등급 하향 조정

- 2011년 1월에 개최된 OECD 국가신용도 평가전문가 회의에서 경제지표 및 외채상환태도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등급을 5등급으로 1단계 상향 조정하였으나, 정국 혼란 및 내전이 지속되어 3월 말 개최된 국가신용도평가전문가 회의에서 동국의 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2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2013년 1월에 개최된 회의에서도 리비아의 국별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유지하였음.
-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확대되자 2011년 2월에 S&P와 Fitch는 동국의 신용등급을 모두 1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이후 민주화 시위가 부족간의 내전 성격으로 전개되고 무력 충돌이 심화되자 2011년 3월에 S&P는 4단계, Fitch는 3단계 하향 조정하여 각각 BB와 B등급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하였음. 또한 두 기관은 리비아의 현 경제·정치상황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한 것을 이유로 들어 당분간 등급 판정을 정지한다고 발표하였음.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제한적 인수가능
-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80. 12. 29 (북한과는 1974. 1. 23 수교)
- 주요협정 : 경제과학기술협정(1999), 무역협정(2006), 투자보장협정(2006)
- 2012년 대 리비아 교역규모는 18억 달러 기록

- 우리나라의 대 리비아 수출은 최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품목별로는 리비아 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동차가 전체 수출의 63.4%로 수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으며, 향후 수출규모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대 리비아 수출금액: 12억 달러('09) → 14억 달러('10) → 1.8억 달러('11)
→ 10.8억 달러('12)

- 2012년 대 리비아 교역규모는 약 18억 달러 규모로, 수출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10.8억 달러를, 수입은 원유, 석유제품, 어육 등을 중심으로 7.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리비아 시장은 자동차 및 가전제품, 의류와 치안 악화로 인해 당분간 보안시스템, 의약품, 의료장비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인프라 재건 사업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진출 중대 예상

- 2002~10년 리비아의 10대 프로젝트 수주기업 중 현대엔지니어링, 대우엔지니어링, 성원건설이 각각 2, 3, 10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 건설기업은 리비아 건설시장의 1/3을 점유해왔음.
- 한국기업들은 현지에서 플랜트, 주택, 전력 등 사회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기술력 및 사업수행능력을 인정받고 있어 재건사업 관련 진출 가능성이 높음.
-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 엠코 등에 주택, 도로, 병원, 교량, 항만 등의 인프라 건설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2012년 3월, STX중공업과 리비아 북부의 토부르크 지역 정부와 발전, 담수, 철강, 화학, 시멘트 등 각종 플랜트 건설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
- 2012년 7월, 벵가지와 미수라타 등 2개 신공항청사 건설사업(550억 달러 규모)에 한화 S&C를 비롯하여 한국공항공사, 종합건축사무소, 근정건축설계사무소 등 '네모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

<표 4> 한 · 리비아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0	2011	2012	주요 품목
수 출	1,410,549	180,912	1,076,690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자동차,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수 입	170,774	248,832	751,839	석유제품, 원유, 기초유분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2012년 12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 45건, 340,615천 달러

V. 종합 의견

-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리비아는 경제제재 해제, 국제 유가 상승, 원유 생산 증대를 바탕으로 5% 수준의 견실한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에 내전발발로 원유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인프라 및 생산시설이 파괴되면서 무려 61.4%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2012년에는 카다피 사망으로 내전이 종식되고 원유생산이 재개되는 등 전후복구가 이뤄지면서 92.1%의 경제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3년에도 반등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카다피 퇴진 이후 2012년 10월에 알리 제이단이 총리로 선출되어 내각을 구성하는 등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NTC)로부터의 민주적 권력이양이 진행되고 있긴 하나, 연립 정부 내 주요정당들의 이념적 차이로 인해 교착 상태가 벌어지고 있어 정권 정착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 내전 종식 이후에도 무장강도 사건과 총기 발포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치안이 불안한 실정이며, 30%에 육박하는 높은 실업률도 사회불안 요소로 상존하고 있음.
- 외채상환태도 관련, 2012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대상 단기외채 연체율은 10%로 전년(35.8%) 대비 감소한 반면, 중장기외채 연체율은 85%로 전년(41.8%) 대비 대폭 증가하였음.

조사역 박유정(☎02-3779-5727)
E-mail : yjpark@koreaexim.go.kr